

오스카 와일드 (1854~1900)

아일랜드 더블린 출생. 아버지는 유명한 안과 의사였고 어머니는 시인이었다. 더블린의 트리니티 칼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했다. 1881년 《시집(詩集)》으로 등단해 88년에는 동화집 《행복한 왕자》를 출간했다. 이 동화집은 1884년에 결혼한 그가 그 무엇보다 소중한 여긴 두 아들을 위하여 쓴 것으로 그 무렵의 사회에 대한 풍자가 넘치는 걸작이다. 그 후 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희곡 《살로메》, 《하찮은 여인》, 《이상적인 남편》 등을 발표하면서 와일드의 명성은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1895년, 알프레드 더글러스와의 동성연애 혐의로 기소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2년 뒤 출감한 후 프랑스로 건너가 파리에서 빈궁하게 살았다. 그는 1900년 11월 30일, 허름한 호텔방에서 가족도 없이 친구와 호텔 주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46세의 나이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한 불운한 천재’, ‘사회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오스카 와일드는 빅토리아 시대 영국의 근엄함과 위선을 거부하고 날카롭게 풍자했다. 그 때문에 조국으로부터 버림받은 작가이기도 했다. 예술지상주의의 대표자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내면의 소리에 충실했던 그의 삶과 작품은 사후 100년이 지나서야 새롭게 조명되었고, 마침내 영국 노동당 정부의 주도로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지게 된다.

거인의 정원 The Selfish Giant

어느 마을의 학교 근처에 아름다운 정원이 있다. 큰 나무 12그루가 복숭아 열매를 맺는 이 정원은 아이들의 놀이터이다. 이곳은 원래 거인의 집이다. 하지만 늘 비어 있기에 아이들은 여기서 마음놓고 뛰어 논다. 어느 날 돌아온 거인이 주인 허락도 없이 자기 영역을 침범

하고 있는 아이들을 모두 내쫓고 커다란 돌담을 쌓아올린다. 담에는 ‘출입금지’라는 간판까지 세운다. 그 이후로 이 정원에는 항상 추운 바람이 부는 겨울만 계속되는데….

이 작품은 1888년 발표한 오스카 와일드의 동화집 <행복한 왕자 The Happy Prince and Other Stories>에 수록되어 있다. 아름다운 문체의 이 동화는 이기주의, 친절, 용서, 구원 등의 주제를 담고 있으며, 만화영화로도 만들어져 지금까지 어린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거인의 정원

[제1장] 옛거인의 정원

p. 12-13 오후 중반에 학교종이 울렸다. 아이들이 학교 건물 밖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들은 정원으로 가는 길을 가로질러 뛰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정원이었다. 푸르른 잔디가 땅을 덮고 있었다. 밝은 색상의 꽃들이 잔디 위로 올라왔다. 나무들은 그 꽃들 위로 우뚝 솟아 있었다. 나무는 12그루가 있었다. 각각의 나무는 키가 크고 많은 가지들을 가지고 있었고 튼튼했다. 매년 봄에 나무들은 흰색과 분홍색의 꽃들을 피웠다. 여름 동안에 그 꽃들은 복숭아가 되었다. 가을에 복숭아들은 익어서 황금빛이 되었다.

p. 14-15 그곳은 놀기에 완벽한 장소였다. 아이들은 시원하고 뽀뽀한 잔디 위에 앉았다. 그들은 꽃을 따서 머리에 꽂았다. 그들은 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들은 나뭇가지에서 서로에게 소리쳤다. 가을이면 맛있는 과일을 즐겼다. 새들은 나무 꼭대기에서 노래했다. 아이들은 즐겁게 들었다. “우리는 여기 있으니 정말 행복해.” 아이들은 자주 말하곤 했다. 이 정원은 오래된 성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것은 그다지 큰 성은 아니었다. 그것은 거의 그냥 둥근 탑이었다.

p. 16-17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탑이 비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 안에 누군가 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문이 매우 컸다. 거인이 그것을 지은 것이 확실했다. 아이들은 감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정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사실 그곳은 한 거인의 소유였다. 그는 7년 전에 떠났다. 그는 해안으로 갔다. 그의 사촌이 거기에 살았다. 7년은 거인들에게는 긴 시간이 아니다.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일 뿐이었다.

p. 18-19 7년 후에 거인들은 대화를 멈췄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거인은 집에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도착했을 때 그는 아이들을 보았다. 그들은 그의 탑 주위를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나무에 오르고 있었다. 거인은 매우 화가 났다.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냐?” 그가 고함쳤다. 그의 목소리는 힘이 넘쳤다. 그는 매우 못된 것 같았다. “이건 내 정원이야! 누가 너희들에게 여가서 놀아도 된다고 했지?” 아이들은 도망갔다.

p. 20-21 거인은 매우 이기적이었다. 그의 정원은 컸다. 그는 그것을 항상 사용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그 누구와도 함께 쓰고 싶지 않았다. 사실 그는 모욕감을 느꼈다. 아이들은 그의 소유물에 있을 권리가 없었다. 그는 정원 주위에 높은 돌담을 쌓았다. 그는 담에 표지판을 세웠다. 그것에는 “출입금지! 무단침입자들은 처벌 받을 것임!”이라고 쓰여 있었다. 만족하여 거인은 자신의 집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 아이들은 슬펐다.

p. 22-23 학교종이 울리자 그들은 밖으로 걸어났다. 그들은 길 건너 높은 담을 보았다. 그들은 놀 곳이 없었다. 그들은 길 위에서 놀 수는 없었다. 그곳은 먼지투성이였고 작은 돌들이 잔뜩 있었다. 그곳은 또한 위험했다. 말과 마차가 자주 지나갔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담 주위를 걸어 다녔다.

그들은 낮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름다운 정원 기억나니?” 그들은 말하곤 했다. “우리는 거기에서 정말 행복했는데.”

[제2장] 기나긴 겨울

p. 26-27 겨울이 왔고 아이들의 수업은 중단되었다. 아이들은 집에 머물렀다. 눈과 서리가 땅을 덮었다. 마침내 봄이 도착해 생기를 가져왔다. 눈은 녹았고 푸른 풀이 자랐다. 꽃들이 나타났다. 새들은 나무에서 노래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정원에는 일어나지 않았다. 거인의 담 안에는 여전히 겨울이 있었다. 봄은 담에 있는 표지판을 보았다. “출입금지!” 그래서 봄은 들어가지 않았다.

p. 28-29 식물들은 계속해서 잠을 잤다. 땅은 두텁게 덮인 눈 아래에 있었다. 나뭇가지들은 나뭇잎과 꽃이 없는 채였다. 새들은 찾아오지 않았다. 새들은 아이들에게 노래를 해 주고 싶었다. 하지만 거인의 정원에는 아이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날아갔다. 이따금 꽃이 나오곤 했다. 꽃은 눈을 헤치고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나서 꽃은 표지판을 보았다. 꽃은 금방 아이들이 가여워졌다. 꽃은 눈 아래로 물러갔다. 꽃은 다시 잡자리에 들었다. 나무는 꽃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나무도 슬펐다.

p. 30-31 오직 눈과 서리만이 행복했다. “봄은 이 정원을 잊어 버렸어.” 눈이 말했다. “우리는 여기서 일년 내내 놀 수 있어.” 서리가 말했다. 눈은 더 두꺼운 눈 담요를 깔았다. 서리는 나무를 은빛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같이 놀기 위해 북풍을 초대했다. 북풍은 털 코트를 여러 겹 입고 도착했다. 그는 담 안쪽에서 핑음을 내며 놀아다녔다. 북풍이 지나가자 나무늘이 뛰어졌다. 때때로 북풍은 굴뚝 아래로 불기도 했다. 거인은 성 안에서 추위에 떨곤 했다. “여기는 정말 마음에 드는 곳이구 나!” 북풍이 말했다. “우린 우박도 한번 찾아오라고 초대해야 해.”

p. 32-33 우박이 파티에 험류하기 위해 왔다. 우박은 정원 주위를 휘었다. 그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뛰는 것을 좋아했다. 그의 옷은 회색이었다. 그의 숨은 얼음장과 같았다. 매일 그는 우박을 뿌렸다. 그것은 성 지붕을 두드렸다. 얼음이 지붕 기와와 창문을 부셨다. 거인은 성 안의 불가에 앉았다. 매일 저녁 그는 깨진 창문에 판자를 대었다. 매일 아침 그는 일어나서 밖을 보곤 했다. “이거 참 이상하군.” 그가 생각했다. “왜 봄이 이렇게 늦게 오는 걸까.” 매일 거인은 좀더 따뜻한 날씨가 오길 바랐다. 그것은 결코 오지 않았다.

p. 34-35 담의 바깥쪽에서는 봄이 여름으로 변했다. 여름은 가을에게 길을 내주었다. 가을은 여러 정원에 잘 익은 맛있는 과일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가을은 거인의 정원에 갔다. “그는 너무 이기적이야.” 가을이 생각했다. “난 그에게 어떤 선물도 주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냥 지나쳐 버렸고 멈추지 않았다. 그 해 그 정원에는 과일이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 겨울은 얼음장 같이 차가운 손으로 계속 움켜쥐고 있었다. 눈, 서리, 북풍 그리고 우박은 계속해서 놀았다. 바깥 세상에는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이때 거인은 늘상 침대에 누워 있었다. 돌아다니기에는 너무 추웠다. 수 개월 동안 그는 그냥 이불 밑에 누워 있었다.

[제 3 장] 봄이 돌아오다

p. 40-41 어느 날 거인은 평상시처럼 천장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었다. “저 소리가 어디서 흘러나오는 지?” 그는 궁금했다. “궁정 악사들이 지나가고 있는 게 틀림없어.” 실제로는 그것은 그냥 파랑새였다. 그 새는 그의 방 창문 밖에서 노래하고 있었다. 거인이 새소리를 들은 것은 꽤 오랜만이였다. 그는 그 음악이 훌륭하다고 생각했다. 우박이 지붕 위에서 춤추기를 멈췄다. 북풍이 굴뚝 아래로 부는 것을 멈췄다.

p. 42-43 그리고 나서 거인은 향내를 맡았다. 그것은 싱싱한 꽃의 달콤한 내음이었다. “봄이 마침내 온 것 같아.” 거인이 생각했다. 그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창문으로 갔다. 거인은 길에서 왕을 보게 되리라 기대했다. 대신에, 그는 상당히 놀라운 뭔가를 보게 되었다. 아이들이 그의 정원에서 놀고 있었다. 그들은 담에 난 작은 구멍을 통해 기어들어 온 것이었다. 어떤 아이들은 나무 밑에서 뛰고 있었다. 초록 잔디가 그들의 발 밑에 있었다. 거인은 초록 잔디를 다시 보게 돼서 기뻐했다.

p. 44-45 다른 아이들은 나무에 올랐다. 그들은 나뭇가지에 앉아서 놀았다. 나무들은 기뻐하는 것 같았다. 나무들은 아이들을 환영했다. 나뭇가지는 살며시 아이들 위에서 흔들렸다. 분홍색과 흰색의 꽃들이 나뭇가지들을 덮었다. 새는 나무들 사이로 날았다. 새들의 노래는 매우 사랑스러웠다. 꽃들도 피었다. 꽃들은 잔디 위로 높게 서 있었다.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것은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거인의 차가운 마음이 따뜻해지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 안에서 다정함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다.

p. 46-47 그리고 나서 거인은 그는 이상한 것을 보았다. 정원의 한 구석에 겨울이 남아 있었다. 그 구석에 작은 소년이 있었다. 그는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너무 작아서 나무에 오르지 못했다. 그는 나무 주위를 걸으면서 울었다. 그 나무는 여전히 눈과 서리로 덮여 있었다. 북풍이 나무 꼭대기에서 으르렁댔다. “올라와, 꼬마야!” 나무가 말했다. 나무는 자신의 나뭇가지를 낮추기까지 했다. 하지만 소년은 너무 작았다. 그는 그 높이까지 닿지 못했다. 거인은 갑자기 깨달았다. 아이들이 없으면 정원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만큼 차갑게 남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러한 깨달음에 거인은 변했다.

p. 48-49 거인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커지는 것 같았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던가!” 그가 외쳤다. 그는 아래층으로 달려가서 현관 밖으로 나갔다. 처음에 아이들은 충격 받았다. 그들은 매우 두려웠다. 그들은 거인이 떠났다고 생각했다. 지난 해 내내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거인은 그들에게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곧장 정원의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는 꼬마 소년에게 곧장 달려갔다. 다른 아이들이 황급히 흩어졌다.

p. 50-51 아이들이 떠나자 정원이 변했다. 눈이 다시 땅을 덮었다. 꽃들이 사라졌다. 나무의 꽃들이 나뭇가지 속으로 다시 들어갔다. 서리가 나무를 덮었다. 거인은 이런 일들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오직 그 작은 소년만 바라보았다. 소년은 거인이 오고 있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는 눈물 사이로 그다지 많은 것을 볼 수는 없었다. 그는 나무만 바라보았다. 나뭇가지가 손에 닿지 않았다. 거인이 걸음을 늦췄다. 그는 소년 뒤로 왔다.

p. 52-53 거인은 부드럽게 소년의 손을 잡았다. “내가 도와줄게, 꼬마야.” 그가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손을 소년의 옆구리에 얹었다. 거인은 소년을 쉽게 들었다. 그는 소년을 첫 번째 나뭇가지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즉각 나무가 변했다. 나무의 몸통에 있던 서리가 사라졌다. 꽃들이 나뭇가지에서 피어났다. 새들은 꼭대기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았다. 나무 아래에 있는 땅도 변했다. 초록 잔디가 눈의 자리를 대신했다. 거인은 소년에게 미소 지었다. 소년은 손뼉을 치고 웃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거인의 목을 껴안았다. 그는 거인의 뺨에 입을 맞췄다.

p. 54-55 다른 아이들이 보고 있었다. 담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들은 거인이 이제 착해진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이기적이고 못되지 않았다. 그들은 천천히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들의 발 밑에 있는 땅이 변했다. 그것은 눈에서 초록 잔디로 변했다. 꽃들이 천천히 머리를 내밀었다. 꽃들은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그것들은 다시 높이 섰다. 새들은 나뭇가지로 들어왔다. 눈, 서리, 북풍, 그리고 우박은 떠났다. 그것들은 거인의 정원에서 자기 자리를 잃었다.

[제 3 장] 새로 태어난 거인

p. 58-59 거인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이제 미소 지었다. 그의 눈은 상냥했다. 그는 말했다. “얘들아, 날 용서해줘. 이 정원은 이제 너희들 거야. 여기서 놀아, 그리고 행복해져라.” 그리고 나서 거인은 자신의 탑으로 들어갔다. 그는 곧바로 다시 나왔다. 거대한 망치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는 그것을 사용해서 담을 허물었다. 그는 돌들을 집어 들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벤치를 만들었다. 그는 아이들이 그 위에서 뒹굴 수 있게 돌들을 놓았다. 정오에 그의 작업은 끝났다.

p. 60-61 마을사람들은 그 길로 지나갔다. 그들은 놀라서 그 광경을 보았다. 아이들은 나무 밑에서 즐겁게 놀았다. 그들은 평평한 돌길을 따라 경주했다. 거인은 초록 잔디 위에 앉았다. 대답한 아이들은 거인의 등을 탔다. 그들은 그의 양 어깨에 앉았다. 거인은 크고 깊은 웃음소리를 냈다. 그 광경은 경이롭고 아름답다. 저녁이 왔다. 아이들이 집으로 갈 시간이었다. 아이들은 각각 거인에게 직별 인사를 했다. 그들은 그의 너그러움에 감사를 표했다. 거인은 미소 지으며 아이들 각각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p. 62-63 그리고 나서 거인은 얼굴을 찡그렸다. “그런데 가장 작은 그 소년은 어디 있니?” 그가 물었다. “내가 나무에 올려 주었던 그 애 말이야.” 다른 아이들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그 소년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아마도 개는 이미 집에 돌아갔나 봐요.” 작은 소녀가 말했다. “그 애한테 내일 다시 오라고 말해줘.” 거인이 말했다. 하지만 아이들 중 아무도 그 꼬마에 대해 그다지 알지 못했다. “우리는 오늘 말고는 그 남자아이를 전에 본 적이 없어요.” 한 아이가 말했다. “그 애 가족이 얼마 전에 여기로 이사를 온 것 같아요.” 다른 아이가 말했다.

p. 64-65 거인은 슬펐다. 그는 그 꼬마를 가장 좋아했다. 그는 그 소년이 그에게 해준 포옹과 입맞춤을 기억했다. 매일 오후에 아이들이 왔다. 방과 후에 그들은 뛰어서 길을 가로지르곤 했다. 거인은 그들을 환영했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그는 온화하려고 신경 썼다. 매일 그는 자신의 작은 친구를 찾았다. 하지만 그 꼬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정말 그 애가 보고 싶구나.” 거인이 말했다.

p. 66-67 여러 해가 지났다. 아이들은 자랐다. 그들은 자신의 가족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자기 아이들을 보내 정원에서 놀게 하였다. 새로운 아이들이 와서 놀았다. 그들은 거인과 친구가 되었다. 거인은 늙고 약해졌다. 그는 정원에 큰 의자를 놓았다. 그는 아이들이 자신의 주위에서 노는 동안 거기에 앉았다. 그는 아이들의 모험에 미소 지었다. 그들의 명랑함은 그를 행복하게 했다. 그는 앉아서 정원과 아이들을 감탄하며 바라보았다. “난 아름다운 꽃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가 생각했다. “내 나무들은 가장 맛있는 과일들을 키우지. 하지만 아이들이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워.”

[제 4 장] 소년, 돌아오다

p. 70-71 어느 겨울 아침에 거인은 잠에서 깬다. 그는 이제 겨울을 싫어하지 않았다. 그 계절은 몇 달 동안만 지속될 뿐이었다. 곧 다시 봄이 올 것이다. 나무에 꽃이 필 것이다. 초록 잔디는 하얀 눈을 대신할 것이다. 꽃들은 향기를 발할 것이다. 거인은 옷을 입기 시작했다. 그는 창문 쪽으로 움직였다. 그는 이상한 광경을 보았다. 그는 눈을 비볐다. 그가 아직 잠들어 꿈꾸고 있었던 것인가? 그는 자신을 꼬집었다. “아우, 아파.” 그가 말했다. 그는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하지만 그 광경은 놀라웠다.

p. 72-73 그의 정원 대부분은 춥고 음울했다. 정원의 딱 한 구석만 빛났다. 따뜻한 황금색 빛이 그 부분을 감쌌다. 이 한 구석에는 은빛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나뭇가지는 흰색 꽃들로 덮여 있었다. 나무 밑에 있는 잔디는 진한 녹색이었다. 그리고 그 잔디에는 한 꼬마가 서 있었다. 거인은 눈을 비볐다. 그는 자신이 본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래 전의 그 꼬마였다! 이제 그가 다시 여기에 있었다. 그는 나이가 더 들어 보이지 않았다. 거인은 아래층으로 뛰어갔다. 그의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 정문 밖으로 그가 나왔다.

p. 74-75 거인은 꼬마에게로 곧장 뛰어갔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멈췄다. 이제 그는 꼬마의 손을 볼 수 있었다. 그 양손에는 빨간 자국이 있었다. “누가 네 손에 못을 박았니?” 거인이 물었다. 그는 몹시 화가 났다. 그때 거인이 꼬마의 발을 보았다. 그것은 맨발이었고 잔디 속에서 하 다. 발에도 역시 빨간 자국이 있었다. 이제 거인은 분노로 몸이 떨렸다. “누가 이랬는지 말해 봐!” 그가 외쳤다. “내가 칼을 가져오겠어. 내가 그 사악한 사람을 벌줄 거야.” 꼬마는 두 손을 들었다. “그러지 마세요.”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침착했다. “이것들은 사랑의 상처예요.” 그가 말했다.

p. 76-77 거인은 더 이상 화가 안 났다. 그의 마음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찼다. “너는 누구니?” 그는 꼬마에게 물었다. 소년은 미소 지었다. “오래 전 어느 날 당신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 줬어요. 당신은 당신의 정원에서 내가 놀 수 있게 해주었지요. 오늘은 제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 차례예요. 내 정원에 와서 노세요. 당신은 평화와 행복을 찾게 될 거예요.” 그날 오후에 학교 아이들이 왔다. 그들은 정원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놀라운 것을 보았다. 거인이 나무 밑에 반듯이 누워 있었다. 하얀 꽃들이 그를 덮었다. 그는 평화로워 보였다. 부드러운 미소가 그의 입술에 머물러 있었다.